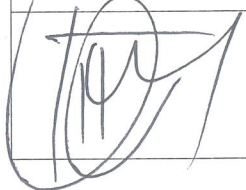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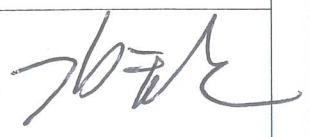


접수번호	7575
접수일자	2020. 8. 14
처리과	행정실
공개여부	

위원장	학교장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제111차)

1. 회의일시: 2020년 5월 8일(금) 11:00~12:00
  2. 장 소: 상산고등학교 화상회의실
  3. 재적위원: 15명(학부모위원: 7명, 지역위원: 2명, 교원위원: 6명)
  4. 참석위원: 10명(김동욱, 김경덕, 이미경, 최규현, 이상곤, 김명환, 강영준, 양승국, 한건옥, 한재원)
  5. 불참위원: 5명(강정화, 김상진, 나지영, 이정희, 박지영)
- ※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학교관계자 및 예방의학전문의 참석
- 교감(이종훈, 국중학), 행정실장(김연수), 예방의학전문의(전북대 권근상 교수)
6. 안 건: 등교개학에 따른 방역 계획 협의
  7. 회의내용
 

(간사가 낭독을 한 제20기(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내용에 대하여 수정 여부를 묻자 전원 이의 없다 하여 만장일치로 수정 없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함)

담당자 강정화: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Zoom)로 진행됨을 말씀드리며, 위원장님의 개회 선언과 안건의 자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하다) 15명의 재적위원 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차 학교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안건 1) 등교개학에 따른 방역 계획 협의

위원장 김동욱: 안건 1) 등교개학에 따른 방역 계획 협의 자문의 건으로 학교 측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원위원 김명환(학교장): 지난 5. 4. 교육부에서 학년별 등교개학을 발표하여 3학년은 5월 13일, 2학년은 5월 20일, 1학년은 5월 27일로 우리 학교 기숙사생은 등교 개학 전날 기숙사에 입사 예정입니다. 우리 학교 코로나19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입사 후 2주간은 격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통제 방안과 방법 등에 대하여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학교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매뉴얼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예방의 학전문의(전북대학교 권근상 교수)의 자문을 받았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북대학교 권근상: (본인 소개를 간략히 하다) 현재 생활방역 체계로 변경되었으나, 5월

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개학 가능여부와 개학을 한다하더라도 중간고사까지 우리 학생들로부터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원위원 김명환(학교장): 학교 일정은 6월 8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되나, 시험 전에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가 발생 시 중간고사를 보지 못함에 따라 통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권근상 교수의 자문을 받아 개정된 기숙사생 관리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1안~4안을 자세히 설명하다) 이에 대한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 기숙사생 관리 방안 >

- ▶ 1안 : 학년별로 등교개학일 이후 각각 5월 27일, 6월 3일, 6월 10일까지 2주간 통제 (학년별 2주씩 통제, 통제되지 않는 학년 혼재)
- ▶ 2안 : 전 학년이 등교하는(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전체적으로 통제 (3학년은 2주, 2학년 1주간 느슨한 통제)
- ▶ 3안 : 3학년 개학일(5월 13일)부터 1학년 개학일 이후 2주 경과시점인 6월 10일까지 전면 통제 (3학년은 4주, 2학년 3주, 1학년은 1주 통제)
- ▶ 4안 : 코로나 사태 종식 시까지 통제

※ 중간고사 기간: 2020. 6. 8. ~ 6.11.

전북대학교수 권근상: 전주는 확진자가 적은 편이나 보건 전문의의 의견에 따르면 개학 시 재유행 할 가능성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 강력한 통제를 권고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저 역시 우리 학교 특성상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위원 이상곤: 대학에서도 개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상화 체계로 가고 있다고 판단되어 개학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위원 최규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강력한 통제와 무증상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한 방향 식사 및 철저한 소독 등 방역체계를 마련하는 등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부모위원 이마경: 4안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방안이나, 현실적으로 3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기숙사생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원위원 김명환(학교장): 비기숙사생은 가능한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하여 외부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최대한 방역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위원 김경덕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고려한다면 저 역시 3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의무적 야간자율학습 참여, 등·하교하는 방법, 주말 생활 관리 등 철저한 지도가 필요



야간자율학습 참여, 등·하교하는 방법, 주말 생활 관리 등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동욱: 저는 학생 통제와 더불어 학교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식당, 편의점 등)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서약서를 징구하는 사항을 매뉴얼에 명시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발열체크자의 전문성 확인 및 교육(체온계의 사용법 습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위원 양승국: 3안의 경우 3학년 학생들의 4주 통제 시 반발 또한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2안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발생 시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교원위원 강영준: 저 역시 학생입장에서 보면 3안은 실행이 어려워 보이며, 격리 시 아이들과의 심리적 갈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원위원 김명환(학교장): 특히 3학년은 수시 등 대학 입시 준비로 학교 밖 계획이 있을 수 있어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생되는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전문의의 의견을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북대학교수 권근상: 현재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학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개학을 한다면 강한 통제와 방역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조심하고 방역에 철저히 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후 개학 준비를 하시길 권고합니다(서약서 징구 등의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매뉴얼에 삽입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다).

교원위원 김명환(학교장):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2학년, 3학년 부장의 경우 학생들을 직접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느슨한 통제(2안)를,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강한 통제(3안)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학운위가 의결기관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 만약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 예방의학 전문의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한 통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사실 선생님들도 아이들 관리에 부담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학사일정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대비하여 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참석 위원 전원 없다고 대답하다) 제111차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폐회를 선언하다)

작성자: 일반직8급 강 정 화

학부모위원 이 미 경

교원위원 양 승 국

강정화 (서명)

이미경 (서명)

양승국 (서명)